

2023. 5. 25.(목) 10:00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밤낮없이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민·관·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경포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 시설 55건, 산림 121ha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누구도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애정은 이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는 673개 단체, 약 6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재난재해 시 복구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긴급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공공·민간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강릉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사천면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옥계면 산불, 2014년 폭설, 2017년 성산면 산불, 2019년 옥계면 산불, 2022년 성산-옥계 산불, 그리고 2023년 경포동 산불.

돌이켜보면 강릉은 태풍, 폭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연례반복적인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노출돼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난재해를 한마음, 한뜻으로 강릉시와 함께 헤쳐 나갔던 봉사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이 시점에서 관련 시설이 뒤따라주지 못해 봉사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구 옥천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어느덧 준공 이후 45년이나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노후되어 있고 공간은 협소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은 떨어지고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현장 신속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상권 밀집지역인 옥천동 동부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별도의 주차공간도 없어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 신축·이전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재적소에 봉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에 더해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확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기업, 금융권 등 각계에서 피해 복구 성금 기부 및 구호품·금융지원 등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세탁 및 샤워 차량을 급파하는 등 구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밥차와 세탁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밥차는 연식이 10년 이상 지나 노후됐으며, 세탁차량은 한 대뿐이라 긴급상황에서 충분한 봉사 공급이 어려우며,

샤워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릉 아레나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던 자원봉사자들은 초기에 자체적으로 장비와 물품의 수급이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대의 사회문제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공공의 영역만으로는 문제해결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고 보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더군다나 강릉은 봄·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강풍을 동반한 산불 발생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이전·신축은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구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